어려운 이웃의 생활 속 작은 불편

'고양뚝딱'이 해결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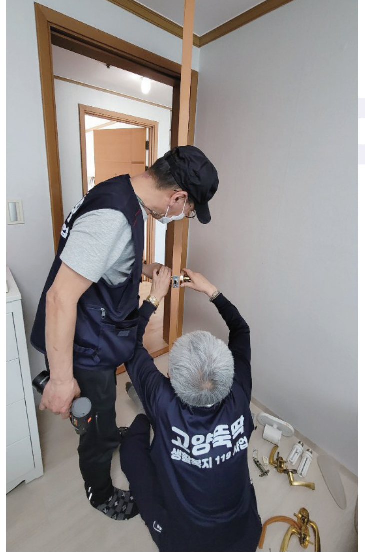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인 전구 교체나 못 박기도 어떤 이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다. 여기, 어려운 이웃의 소규모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수리 지원 서비스 '고양뚝딱'이 있다. 현장에 나서는 고양뚝딱 수리전담반을 만나 그간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수리전담반 신동근 씨, 박성진 씨

고양뚝딱 생활복지 119

01 —— 취약계층 가정 내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 지원
02 —— 한 가구 당 1년에 3회 이내로 신청
03 —— 공사비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66

현장에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도 주위를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길을 전하고 싶습니다.

99

작은 고장, 이제는 문제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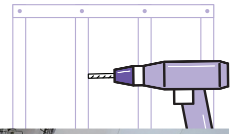
조명 교체, 배관수리, 단열재 부착, 방역…. 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도, 한부모 가족도 안심하고 집안의 사소한 고장을 해결하기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속 작은 고장이나 불편사항을 혼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고양뚝딱'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양뚝딱'은 작년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초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상은 고양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전구나 전등 교체, 수도꼭지나 샤워기 교체, 출입문 경첩이나 방충망 보수 등 생활하며 부딪히는 사소한 불편을 전담반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해결해준다.

현재 활동 중인 전담반은 두 팀. 고양시 담당자와 함께 3인 1조로 신청 세대를 방문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대상자에 한함)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사전방문을 거쳐 이후 수리작업이 이뤄진다.

나의 손길이 다른 이에게

"보수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고양뚝딱의 서비스 범위는 넓다. 전기, 냉·난방, 안전·위생, 소규모 수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불편 전반을 다룬다.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난감했던 부분을 해결해주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사전교육과 경보수 훈련을 거쳐 전담반에 참여한 활동가 신동근, 박성진 씨는 현장에서 수리하며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한다.

현재는 2개 전담팀이 한 달 평균 80~90건의 수리를 해결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아직 고양뚝딱을 모르는 이웃들이 많다"면서, "고양뚝딱을 통해 보다 많은 이웃들의 삶에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